

---

---

## 테마진단

---

---

### ▶저축률의 변화를 통해서 본 내수 불황 평가와 시사점\*

이 태 열  
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

#### 1. 저축행태에 대한 논의 배경

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험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배경과 특징을 가계의 저축 행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파악해보고자 함.

- 최근 내수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의 반대 개념 또는 가계 경제의 여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저축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.
  - 우리 경제는 전통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투자 자금의 공급처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소비보다는 저축이 미덕이었음.
  -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비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계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됨.
  - 특히, 최근에는 수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극심한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경제 여건과 더불어 소비 및 저축 행태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.
  - 가계 경제의 저축 행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내수불황으로 수요가 악화되고 있는 보험 수요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함.
- 가계의 저축 행태와 관련하여 본고는 국민계정의 총저축, 자금순환의 개인금융자산 그리고 도시가계조사의 흑자 등 크게 3가지 개념의 저축 지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할 것임.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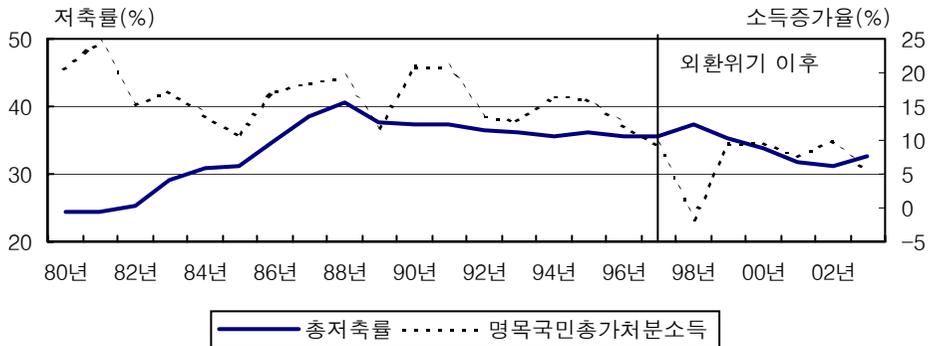
\*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힘.

## 2. 총저축률

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중 개인부문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. 특히, 최근에는 저축률과 소비증가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비가 경기 순환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우려됨.

-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득 증가율과 저축률이 반비례하는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음.
  - 총저축률은 8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면서 1988년에는 40.5%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에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어 2003년에는 32.6%까지 낮아짐.
  - 소득 증가율과 저축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저축률이 소득증가율과 반비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가 오히려 경기 변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2).
-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2000년, 2002년에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득증가율이 낮았던 1988년, 2003년에 저축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남.

<그림 1> 총저축률과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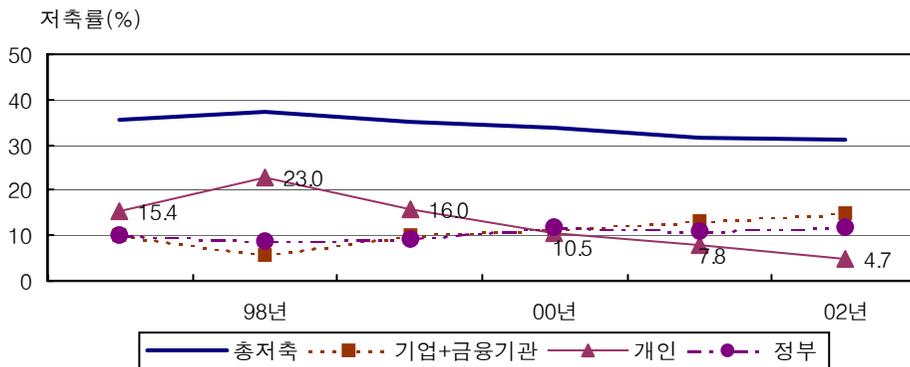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2) 이는 소득여건이 악화될 때 소비를 축소시키고 반대의 경우 증대시킴을 의미함.

- 총저축의 구성에서 개인저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, 정부 저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.
- 개인저축률은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소득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더욱 크게 축소하면서 큰 폭 상승했으나, 이후 경기 회복과정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- 반면, 기업 및 금융부문은 투자 감소에 따른 잉여자금 확대의 영향으로, 정부 부문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의 꾸준한 확대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- 개인부문 저축률의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저축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는 있으나, 국민계정 자료인 만큼 자산 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여 체감 저축률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

<그림 2> 경제주체별 저축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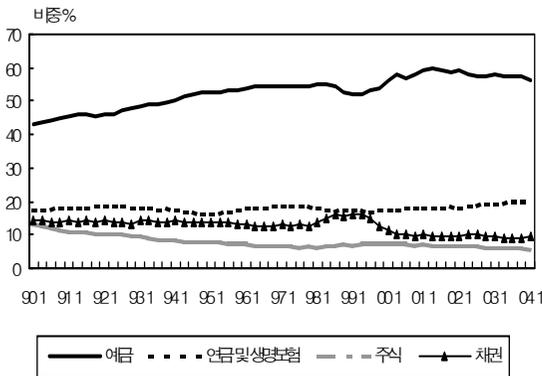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### 3. 금융자산의 구성

개인의 금융자산 중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령화,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등의 영향으로 타금융상품에 비하여 선호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개인의 금융자산 중에서 보험 자산 비중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권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면서 그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.
- 보험의 비중은 채권과 반비례하면서 대체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완만하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3).
- 채권은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현상과 함께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9~10%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.
- 예금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2001년까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약 60%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.
- 주식은 금융시장 발달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.
- 금융자산 자료는 기본적으로 축적된 저장(stock)의 개념으로 유량(flow)의 개념인 저축과는 다른 것은 사실이나, 비중 변화의 추이를 통해 볼 때 보험이 자산선택에 있어서 그 상대적인 선호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.
-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달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3> 금융자산의 비중 추이



주 : 예금에서 통화 및 통화성예금은 제외함.  
 자료 : 한국은행

<표 1> 자산 비중 및 상관계수

금융 자산	비중 ('04 1/4)	상관계수 (with 연금 및 생명보험)
연금 및 생명보험	19.7	1.00
예 금	56.1	0.30
채 권	9.4	-0.65
주 식	5.7	-0.28
기 타	9.1	-0.13
전 체	100.0	-

주 : 자산별 비중 간의 상관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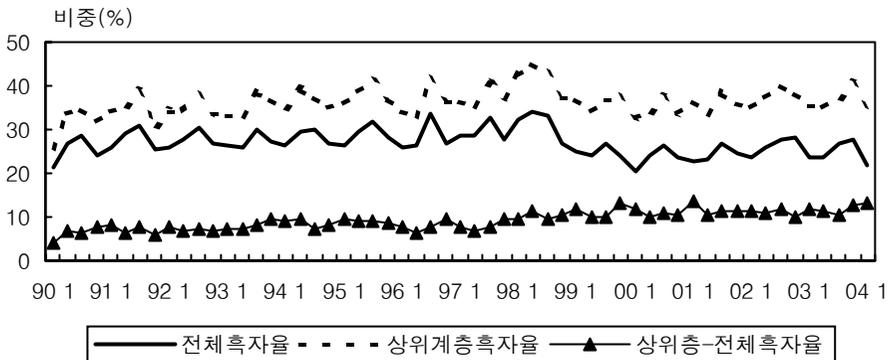
3) 채권 중에서도 특히 장기채권과 반비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#### 4. 도시근로자 가계의 흑자율

도시근로자 상위30%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보수적인 가계운영으로 흑자(저축)규모가 전체근로자 가구의 3/4을 점유하고 있으며, 특히, 불황기에는 소비를 축소하고 오히려 저축률을 제고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수 경기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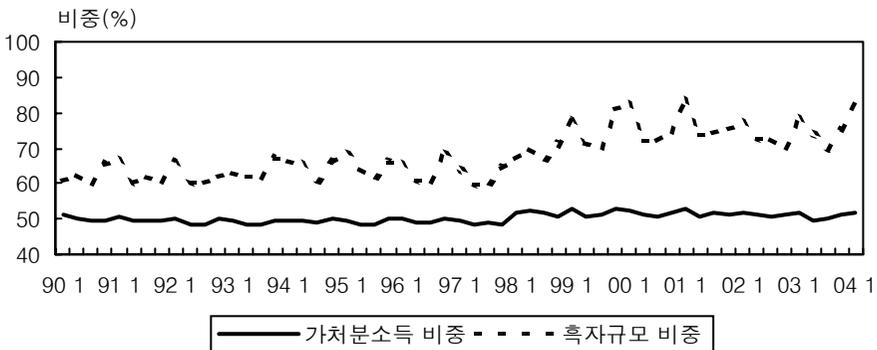
- 도시근로자 상위소득 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저축률을 꾸준히 상승시키며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고 있음.
-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의 흑자율은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다시 소비지출을 차감하면 흑자가 도출됨. 따라서 저축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.
  - 가처분소득 = 소득 - 비소비지출, 흑자 = 가처분소득 - 소비지출
- 외환위기와 함께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도시근로자가계의 저축률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했으나, 상위30% 소득계층의 경우는 흑자(저축)율을 다시 회복하여 2000년 이후에는 35% 상회하면서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복귀함.
  - 따라서 상위계층의 흑자율과 전체 평균 흑자율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10%p 이상으로 확대됨.

<그림 4> 상위계층과 전체평균 흑자율의 추이 비교



- 외환위기 이후 상위계층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소득보다 흑자 또는 저축규모에 있어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.
- 도시근로자 가계의 상위 30%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49% 전후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1% 수준으로 약 2%p 확대됨.
- 반면, 소득격차에 저축률의 격차 확대까지 가세하면서 전체 도시근로자 가계의 흑자(저축)규모 중 상위 30%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약 63%에서 이후에는 약 3/4에 해당하는 74%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.
- 2004년 1/4분기의 경우 상위 30%의 흑자규모가 전체의 83%에 이르고 있음.
-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상위 소득계층은 상대적인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흑자율을 동시에 상승시킨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가계 저축에서 상위 계층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됨.

<그림 5> 상위계층의 소득과 흑자에서의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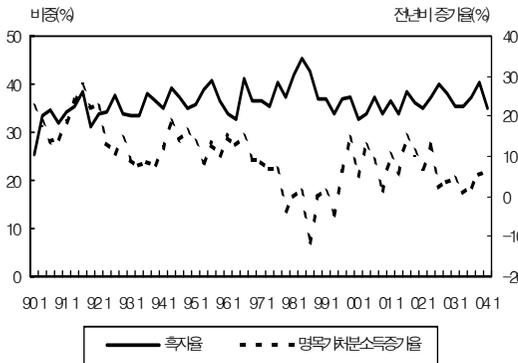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- 상위 계층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을 때 오히려 소비를 축소하고 저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 내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도시근로자 가계에서 상위 30%의 저축률은 <그림 6>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목 가처분소득증가율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하락하는 특징이

나타나고 있음.

- 상위 30%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흑자율과 명목가처분소득증가율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-0.39로 나타나 반비례 관계임이 확인되고 있음.
- 소비지출에서 내구재가 포함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현상일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내구재가 대거 포함된 '개인교통', '교양오락용품기구', '피복 및 신발', '가구집기 가사용품'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비지출을 산출한 다음 다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도 여전히 반비례관계로 나타남.
- o 다른 소득계층의 경우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거나(중위계층) 정비례(하위계층)로 나타나고 있음.
- 이는 앞서 총저축률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축률과 소득증가율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상위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의미함.

<그림 6> 상위계층의 흑자, 소득 추이



<표 2> 소득과 흑자율의 상관계수

구 분	상관계수	t-값
전 체	-0.17	1.55
상위 30%	-0.39	3.68
중위 40%	0.03	0.31
하위 30%	0.37	3.81
내구재제외 전체	-0.11	0.97
내구재제외 상위	-0.21	1.95

주 : 명목가처분소득증가율과 흑자율의 상관계수

## 5. 시사점

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상위계층으로의 저축여력 집중이 마케팅 역량의 집중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, 근본적으로 내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소비성향을 자극할 대안 모색이 필요함.

-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위 계층으로의 저축여력 집중과 보험 상품에 대한 꾸준한 선호도 증가 등에 대해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.
  - 도시근로자가계에서 상위 30%의 흑자규모가 전체 도시근로자 가계 흑자 규모의 약 3/4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험 등 금융 상품의 마케팅 전략이 이들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.
  - 통합형 보험, 변액 연금, 일시납 연금 등 상위 소득계층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.
  - 반면, 하위 계층의 경우 저축 여력의 부족으로 관련 수요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적보험과의 보완 관계 수립, 단체 보험의 활성화 등 다른 측면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- 불황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위 계층의 보수적인 가계 경제 운용은 내수 불황의 극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한 소비 확대 유도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것임.
  - 상위 소득계층은 불황기에 저축률을 상승시키는, 다시 말하자면 소비를 더욱 감소시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수 불황의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.
  - 내수 불황의 지속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소비 및 저축 여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상위계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유용할 것임.
  - 불황기에 상위 계층이 보수적인 입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비 유인책을 강구해가는 노력이 필요함.